

譜錄諸文

月軒帖

月軒公所記帖子月軒以上先代諱辰及署令公履歷所載以室外祖墳山忌日亦頗在錄崇禎戊寅我仁祖十六年 觀雲公謄傳於白川江西前郡守李恪家
李恪即月軒公之外四代孫也

월헌첩

月軒公(諱壽崗)께서 기록하신 冊子로서 公 以上の 先代の 이름과 生年月日 署令公의 履歷 및 外祖의 墓所와 忌日까지 仔細히 記錄되었다 崇禎戊寅我仁祖十六年(西紀一六三八年)에 觀雲公(諱時傑)께서 白川江西의 前郡守였던 李恪氏宅에 있는 것을 畧히 배껴서 傳함(李恪은 即月軒公의 外四代孫임)

僉正帖

後孫僉正玉精所記今未傳者

침정첩

後孫 僉正公(諱玉精)께서 기록하신 것으로 現在 傳하지 아니함

水村錄叙

舊有家譜詳錄先世行蹟履歷而失於壬辰兵火中大父監司允祐公兵火前出守光州牧亦有譜記携在官所賊退還京寓居東門外村墅彥璿亦奉親來居瑩下白於大父請得謄書面其年七月大父家遽遭火災家譜餘存收拾於灰燼中多有闕文恭安公祖考則有碑文誌文有所憑閱而贊成祖考則家譜燒毀碑誌未成後孫無所稽考監司大父必得詳記而謝病大歸嶺南遠未稟白而大父遽至捐世贊成公平生履歷重望宿德蔑蔑無傳使後孫不得詳聞其餘風可勝歎哉兵火之後亦各衰輯衆聞得以構成碑誌則庶可傳後而宗子微弱且貧諸孫之在官者亦不致念有可爲之勢面終不得成先君堂從皆已淪喪彥璿年七十九淪落將死亦係家運痛歎而已

수촌록머릿말

예전에 집에 家譜가 있어 자세한 선대의 行적과 履歷이 기록되었던바 壬辰倭亂中에 다 타서 없어졌고 一家집 할아버지 監司 允祐公(允祐公)께서 난리전에 光州牧使로 계실때에 역시 족보의 기록이 있어 판사에 모시고 있다가 왜적이 물러가매 서울로 오시어 東大門 밖에 사셨는데 시골 언천(彥璿)이 또한 父母를 모시고 先山下에 와 살게 되어 大父(允祐)께 아뢰어 배끼기를 請하였던바 그해七月에 大父宅에 졸지에 火災가나 가장지물이 다 타고 家譜의 나머지는 잿더미에서 줍게 되니 빠진 文字가 많고

공안공 (恭安公) 하라버님것은 碑文과 誌石이 있어서 의지하여 찾아볼수 있으나 찬성공 (贊成公) 하라버님것은 家譜가 다 뒀고 碑文과 誌文이 아직 마련이 안되어 후손이 상고할바 없었다. 생각컨대 監司大父께서 받드시 자세히 기록하여 두셨겠으나 病患으로 벼슬을 사직하시고 모두 嶺南으로 떠나가셨으니 길어 멀어 여쭙어볼수없고 大父께서 줄지에 도라가시게되니 찬성공 (贊成公)의 平生의 履歷과 重望 (重望) 과 내려온 德望이 전혀 전함이없어 후손으로 하여금 그 내려오던 풍채를 생각도 못하게되니 기막힌 일이다. 兵火후 각처에서 여러가지 소문을 모아 碑文과 誌文을 꾸미게되니 거의 後世에 전할만치 되었는데 宗孫은 미약하고 가난하며 세손의 벼슬하는자는 역시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할만한 형편이라도 마침내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님 당숙이나 중형제께서 다 별써 상사나시고 언선 (彦璿) 도 나이 七十九세라 윤락하여 죽게되니 또한 가운을 통 단할 뿐이로다

述先錄序

古者宗法立而國家尊三代盛時最重此法自庶人以至于大夫士莫不各立其宗以率其衆族是故有大宗小宗之別大小宗之明而譜在其中矣後世此法廢則士族之家莫不家明世系以別其派謂之族譜豈宗法之遺意耶我國世祿之家亦家有譜小則錄之爲帖大則演而爲卷卷譜多有刊行者萬曆壬辰大遭倭人之禍八路均被兵燹而譜牒之屬既乎蕩然矣我先人於亂定之後取家藏世系且訪列派之後裔作爲族譜不幸又值清人之亂而亡之矣吾外弟權倫會錄一本偶保不失時傑復取而修之增以後生之未錄者比舊幾益三分之一於是略似就完欲爲刊板而物力未措姑贍數本以分諸兄弟又念多難之際卷子稍大難保不亡則別將小冊子只取世系而略於分派專詳於先代年壽履歷忌辰葬地而復略附行蹟於下擬古之所謂家乘者而命之曰述先錄非但所錄者要挾持便簡難失之彼而保乎此也惟我後屬其識此哉庚子正月十三日通訓大夫行稷山縣監時傑謹序

술선록머릿말

예전에 宗法이서서 나라가 尊嚴하게되었고 三代가 盛할때에 이법을 重히하여 못사람으로부터 士大夫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宗中을 세우지않는이가 없어서 그 여러一家를 거느리게 되었다. 이런고로 大宗과 小宗의 구별이있어 大小宗이 분명함으로 族譜는 그中에 있는것이다. 後世에 이법을 없애니 士族의집이 집집마다 宗統만을 밝히고 그 派別을 分別하지않을수없으니 이른바 族譜라는것은 어찌 宗法을 뜻한것이라. 우리나라 世祿의 집이 역시 집집마다 族譜가 있어서 적으면 기록하여 한 첩자를 만들고 크면 길게 책을만들어 卷譜를 간행한것이 많았으나 宣祖二十五年 壬辰 (서기一五九二)에 크게 倭人에게 화를 만나 八道가 군대의들불 (燹)에 파문쳐 죽어나 가침이 휩쓰러 다 단지라 돌아가신 우리아버지께서 난리가 평정된후 집에 감추어두었던 世系와 또 各派의 후손을 찾아 죽보름 꾸미셨던바 불행하게도 또 淸人의亂 (仁祖十四年 丙子 서기一六三六)을 만나 없어졌던바 나의 外弟 權倫이 일즉이 한권을 기록하여 보관하여 사실상 없었으므로 時傑이 다시 얻어고치고 後世에 적히지 않을것을 더하니 전에비하여 거진 三分의이 더한지라 이에 완성된상 싶어서 刊行할까 하였으나 物力이 맞지 못하므로 우선 수권을 기록하여 그것을 여러兄弟에게 나누어주고 또 어려운일이 많을때에 책자가 커서 보존하기어려워 없애지 않도록 할것을 생 각하던바 따로 적은책자로 꾸미니 다만 世系만취하고 分派를 간략히하며 오로지 선대의 年數 履歷 忌辰 葬地만을 자세히 적고 다시 간단히 행적을 그아래에 적었으니 말하자면 옛적 가승과 같은데 이름을 술선록이라 하니라. 비단 기록한바 가지기 에 간편하여 비록 저곳은 잃었더라도 이곳은 보존할수 있도록 하였다. 顯宗二年 庚子 (서기一六六〇) 正月十三日 通訓大夫 權

述先錄重刊記

先世家乘譜牒蕩失於壬辰兵燹中矣族兄時傑甫奉先思孝廻出尋常至誠哀輯而其嘉言善行之寄在人耳目者一一拾得且圖先山合作一冊名之曰丁氏述先錄刊布於諸子孫其有功於一門豈可勝道哉第其所載行狀履歷詳於本親而略於旁親故於是乎 余又詳其略而補其闕重刊于此而身在塞外未克博訪廣集亦多疏漏可勝歎哉崇禎後戊子春三月不肖孫吉州牧使時濶記

술 선 록 중 간 기

先世의 가승과 보첩이 壬辰(我宣祖二十五年 서기一五九二년) 왜란때 모두 불에타서 없어졌다니 죽형 時傑甫가 奉先爲祖의 至誠으로 一家를 두루찾어 수집하였는데 그 아를답고 善한 言行을 보고 들은대로 一一히 모으고 先山의 圖面을 合하여 一冊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丁氏의 述先錄이다 이冊字를 여러 子孫에게 나누어주니 우리 一門에 有功함을 어찌 다 稱頌할수 있으랴 그 기록된 行장과 이력이 本親에게는 仔細하고 旁親에게는 簡略함으로 이제야 또 내가 그간략한데를 仔細히 하고 그 빠진데를 보태여 重刊하니 이몸이 邊方에 있으므로 能히 널리 찾고 널리 모으지 못하여 역시 疏漏함이 많으니 단식할 따름이로다 승정후 무자년(아조인조二十六年 서기一六四八年) 봄 불초손 길주목사 시윤은 기록 한다

海營譜

台變按此譜亦典簿公取各派譜系輯成一部而肅宗丁巳夏付從子昌燾刊三十冊于海營者也自大將軍爲始至燾字 道或以 行而止下編載先世碑文自署令公以下七世遺蹟也於監察公碑末附孫某以丙辰冬拜海伯代石勒文之由而止惜乎原冊首尾不叙蒐輯之來歷故後人因以海營二字歸美於海伯公而不知有典簿公一生用力盡在此錄其可乎觀於斗湖公順天譜序文則庶可悉矣

해 영 보

台變이 이譜를 살피건대 典簿公(諱時述)께서 各派의 體系를 수집하여 一部를 작성하였고 또 숙종丁巳年(서기一六七七年) 여름에 典簿公의 從子되시는 海伯公(諱昌燾)께서 三十冊을 刊行하시니 이것이 海營譜이다 檢校大將軍公(諱允宗)을 비롯하여 燾字(或道字) 行列에 머물렀고 그下編에는 先世의 比문과 署令公(諱子俊) 以下 七世의 유적을 기록하셨고 監察公(諱彥珪)의 碑末에 孫昌燾가 丙辰年(서기一六七六年) 겨울에 黃海道監察使를 拜受하신 採石刻文의 事由가 附錄되었다 아갑다 原冊首尾에 수집한 내력이 不明함으로 後人이 다만 海營 두字 로만 알고 있을뿐이요 典簿公의 一生의 힘쓰신 일이 모두 이冊에 기록되었는지 알수 없으니 可歎할 일이다 斗湖公(諱時濶)의 順天譜序文을 보면 仔細한 內容을 알니라

順天譜序

族之有譜古也而吾先世譜錄散失於兵燹之後連值喪亂未遑補輯矣族兄時述甫慕先甚篤積年哀集且取各派譜系參互考證輯成一部因其姪子昌燾按察海西刊行若干卷而猶有所未盡者故更加釐正內外纖悉功既告訖風燭奄及惜乎吾兄一生用力盡在此錄而未克繡梓余嘗感吾兄慕先

之誠用力之勤且恐其泯沒而無傳迺者適宰昇平銳意斯役鳩財捐俸謀及匠手使族姪生員均燾監董之追錄後生之未錄者而詳於本孫略於外裔非謂譜凡例則然蓋緣物力有所不瞻觀者恕之 崇禎紀元後歲在壬午四月下澣不肖孫通訓大夫行順天都護府使時潤謹序

순천보머릿말

겨래의 족보가 있음은 예전부터인데 우리先祖의 譜錄이 兵火中에 散失되고 그후 連이어 난리를 만나 修譜할 겨를이 없었다 兄時述氏는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심히두터워서 해(年)를 쌓아(積) 모으고 또모아 각과보계를 취하여 서로 상고하고 또 考證하여 一部를 편집하여 그조카 昌燾가 黃海監司로 되었을때에 몇卷을 박혀낸바 그러도 미진한바 있으므로 다시 바로잡으니 안과 밖이 잘맞아 완성됨에 화재를 당하게되니 아깝도다 우리兄弟의 一生에 힘드림이 다 이譜錄에 있거늘 잘박히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 일즉이 우리兄弟의 保存하는 正성과 用力이 부지런한것을 감탄하고 또 그 없어져 傳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더니 이에마침 太平時의 재상이됨에 곧 日錄에 뜻하여 돈을 모으고 녹을때에 발간할 計劃이 된바 죽질 생원 均道(均熙)로 하여 금 감독케하여 後生에 빠진자를 더記錄케하고 本孫을 자세히하고 外系는 簡略하게하니 족보편집하는 規例法은 아니라 하겠으나 대개 物力이 넉넉지 못한바 연유이니 보는者 용서하라 崇禎紀元後歲在壬午(숙종二十九年) 서기一七〇二) 四月하순 불초손 통훈대부 順천도호부사 시윤(時潤)은 근서함

庚午譜序

譜牒之作所以明一本也萬物本乎天人本乎祖自祖而孫如木之有枝有葉如山之有峰有阜分鋪而雖衆至千萬究其本則一己此世家之作爲譜牒以明其一本者也譜牒作而知尊祖敬宗之道修敦本睦族之誼則其在淑世教裨風化夫豈淺淺乎哉吾丁自檢校大將軍公在麗朝九世簪組聯綿赫焉在國初隱德公毓慶累仁子孫昌大世出名卿文章勲伐遂爲東方著姓至于忠靖公德量弘深祿用是副內外曾孫一千二百有餘人天之報施其驗果如是矣其後加平公述先錄海伯公海營譜參議公順天譜歷舉世德昭載子姓收成帖本殆近二百年斯生齒日蕃親屬日疎玄雲耳來散在各處葺功總袒稍存分數或異鄉涯角竟不得平生一面或貧窮失學有不知派系之所傳以若同祖之孫與路人有別者無幾嗚呼尚可忍言在今日繼志述事之道莫先乎收議入梓廣佈諸宗俾壽其傳而常患財力未究權輿無竟有志未就者蓋亦有年矣歲在戊辰族兄馨教氏發文傳喻于諸宗而凡百劊劊之役專任於族姪大栻甫遂乃出謀費慮靡不痛極不待名下之收錢私自備辦不數年印成九冊刻書各派纖悉備俱於是八域諸宗知所一本而宛然若同堂而合席矣自此而敦叙之誼有倍於平日立愛之心益勉於後昆則此皆譜牒之力也其有光於先祖有功於吾宗不其大矣乎印纔訖屬余序余寡識且以布素恐有忝先之肖不果許既又請至再三乃敢齊沐舉本末于茲庚午三月旬日不肖孫洵教再拜謹序

경오보머릿말

보첩을 만드는데는 一本을 밝힘이라 萬物은 하늘이 根本이요 사람은 할아버지가 根本이라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는 나무의 가지가 있고 잎이 있는것과 같고 산에 봉우리가 있고 언덕이 있듯이 퍼져서 비록 千萬에 이르더라도 그 根本을 생각하면 하나 뿐이다. 勢道있는집이 보첩을 꾸미는것은 그 한 根本을 밝히는것이라. 보첩을 꾸며서 祖上을 존중히 여기고 宗統을 공경하는 도리를 알게하며 根本을 두텁게하며 친족을 화목케하는 의를 닦으면 그것이 세상의 教化를 밝게하고 風俗變化에 有益함이 있을것인즉 어찌 허술이 할것인가. 우리丁氏는 高麗朝에 계서서 九代나 벼슬하심이 연이어 赫赫하셨고

朝初에 있어서는 은덕공(隱德公 諱衍)께서 福되신일을 많이하시어 어지신일을 많이하시어 子孫이昌盛하고 크게되어 世上에
 름난 재상이 나시어 문장과훈벌이 미상불 우리나라에 이름난 姓이되어서 忠靖公(忠靖公 諱應斗)에 이르러서는 도덕과 국량이
 크시고 깊은신바 늑 받으시기를 대소로히 여기셨으며 內外 曾孫이 千二百여명이었으니 하늘이 갇아주심이 그 징험이 과연
 같더라. 그후 가평공(加平公 諱時傑)의 술선록과 해백공(海伯公 諱昌燾)의 해령보와 참의공(參議公 諱時潤)의 순천보는
 先祖의 내력을 역역히드시고 밝게 子孫을실어 거두어 冊과帖을 이문지 별씨 거의 二百年이 가까우며 이에 생산하고 나이먹는
 것이 나날이늘어 一家부치가 날로생기여 그동안 후손들이 흐터져 각처에살며 기공시(耆功總)만이 겨우 손수에따라 있을뿐
 먼데로이향하여 마침내 平生 한번도 만나지 못하며 후 貧窮하여 배우지못함으로 派系에 傳하는바를 알지못하여 이제
 할아버지 子孫으로서 路上行人과 더불어 분별하는사람이 얼마 못되게되니 슬스다 어찌 가히 참아말하리오. 오늘에있어
 어 할도리는 우선 收單文을 의논하여 보책을발간하여 널리 分佈하여 그 전함을 잘 간직하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尙
 財力이 마련이 못되어 마련할 도리가없어서 뜻은 있었으나 실천하지 못한지 몇해가 넘었던것이다. 戊辰年(高宗六年 一八
 六八)에 죽형 향교(馨教)氏가 제중에發文하고 모던일에 깎고 다듬는 책임을 전수 이 죽질 대식(大拭)에게 맡기니 결국
 주선하는 비용을 낼생각들이 미미하여 도무지 잘되지않이함에 名下錢의 수금을 기다리지않고 사사로히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수년이 못되어 아홉卷 한질씩을 박혀내니 各派의 세세한것이 구비되었도다. 이래서 八道의 제종이 한本된것을 알게되어
 히 한집에 합석한것 같은지라. 이로부터 돈목하는 의리가 평일보다 배나 더할것이고 友愛하는 마음이 遠近에 더욱 힘써질지
 니 이것이 다 죽보의 보람이라. 그先祖에게 빛이 있고 우리宗에 공이있음에 그偉大한일이 아닐까. 인외가 겨우 끝남에 나
 에게 서문을 부탁하니 내 아는바없고 맨바탕이므로 선조에대하여 잘못이있을까 두려워 과연 허락하지 않았던바 또 再三청함으
 로 이에 감히 목욕재계하고 전후사실을 이에 드러 말한다 경오(高宗八年 一八七〇)三月十日 불조손 순교(洵教)는 재배
 하여 삼가말한다.

譜何爲而作也士大夫無譜無以詳其祖先後生繁而亦莫能詳此吾丁之舊有譜而今又繼之者也吾丁肇於麗代自檢校大將軍公以後綿世千年雲
 仍蕃昌如水一源而千派矣吾祖觀雲公如所述先錄一卷其後德巖公刊之於海蘭又成單卷譜以廣之吾丁之譜始於此而參議公順天譜亦略同焉
 嗚呼惟我月軒公恭安公忠靖公顧菴東園愚潭德巖海左諸公道學文章仕宦出處皆耀名德於一世流聲聞於後代人稱爲華宗名門其遺澤所覃餘
 蔭所庇子孫今益蕃衍家系乘殆連篇而累帙族姪上舍友燮甫慮其寢遠而疎而闕乃與余謀續舊譜而新之役三年而訖凡九卷然而吾宗未遑之
 事苟非友燮甫至誠且篤其何能易就之若是也諸宗以余爲德巖公之後屬以弁卷之文余踟躕起再拜曰嗚呼海營譜順天譜皆出於述先而今日之
 有續譜亦述先之事也吾宗之所當繼述者奚獨是譜事已也蘇氏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出吾宗亦當以孝悌之道繼述之則凡吾同譜者皆將
 觀感於述先之錄而油然而有心矣夫服盡則情竭故自耆功至於路人苟知爲路人之可憾則敦睦之誼烏可忽也且爲賢祖之孫者小善難以名小惡
 易以辱此又可懼也余以是自勉諸宗曰諾遂感歎爲之序庚午三月既望不肖孫大翊再拜謹序

보는 무엇을위하여 꾸미는것인가 士大夫집으로서 族譜가없으면 그 할아버지의 먼저를 자세히 알수없으며 後生의 번영함도 또한
 능히 이를 자세히 알수없는것이다. 우리丁氏는 前에 죽보가 있었던바 지금 또계속하려는것이다. 우리丁氏는 高麗적 검교대장

군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代를 이어 千年 동안 후손의 번창함이 물의 한 근원으로 천물결이 파생함과 같다 우리 할아버님 관운공(觀雲公 諱時傑)께서 비로써 술선록 한권을 지으시고 그후 덕암공(德巖公 諱昌燾)께서 해일에서 발간한바 만드시어 퍼뜨리시니 우리 丁氏의 족보가 이에서 시작이고 참의공(參議公 諱時潤)의 순천보도 또한 같다. 오호라 오죽 우리 월현공(月軒公 諱壽崗) 공안공(恭安公 諱玉亨) 충정공(忠靖公 諱應斗) 고암공(顧菴公 諱胤禧) 동원공(東園公 諱好善) 우담공(愚潭公 諱時翰) 덕암공(德巖公 諱昌燾) 해좌공(海左公 諱範祖) 여러어른들이 도학과문장이며 벼슬로 出世하심이 명예와 덕망이 한世上에 빛나시어 전해오는 소리가 후대에까지 들려 사람마다 화종명문(華宗名門)이라 칭송하니 그 끼쳐 준신 은택의 퍼짐과 내려오는 음덕의 보호로써 子孫이 지금 더욱 번창하여 家系와 家乘이 자못 책을연이어 여러질이 되는데 宗질 상사(上舍) 友變甫가 그 오래되어 멀어지고 빠질것을 염려하여 이에 나와같이 舊譜를 계속하여 서로 꾸밀일을 피하였던 바 三年만에 마침바 대개 아홉권이니 우리종중에 생각지도 못한일을 함으로 우섭보의 지성과 결심이 아니면 그어찌 이렇게 될것이라. 제종이 내가 덕암공의 후예가 된다하여 서문을 부탁하니 내 공손히 재배하며 말씀하기를 오호라 해령보나 순천보가 다 술선하는일인바 오늘 족보를 속보함도 또한 술선하는 일이라. 우리종중의 당한바술사가 어찌 홀로 이譜事뿐이리오. 소씨(蘇氏)가 말하되 우리족보를 보는사람은 효제심이 저절로난다 하리라 하더니 우리종중도 또한 효제의도리로써 계속하여 족보를 꾸밈으며 참 우리 등보한분은 앞으로 술선한기록의 감격됨을 보게되여 저절로 이런 마음이 날것이로다. 대개 복(服)이 다한즉 정(情)이 다하는고로 기년복과공의복에서부터 남과같이 참으로 남남끼리가 된것을 섭히 알진대 친척의 돈목의지를 어찌 소홀히 하리요. 또 어지신 할아버님의 손자가된 사람으로 조그마한 잘함으로 이름나기 어렵고 조그마한 잘못으로 욱되기쉬우니 이것이 또한 참 두려운 일이다. 내 이로써 스스로 애쓰노라하니 제종이 옳다하므로 마침내 감탄하여 머릿말을 쓴다. 庚午(高宗八年 서기一八七〇) 三月十五日 불초손 대익(大翊)은 재배근서한다.

辛未譜序

譜者譜其世也周官小史掌邦國之志尊系世辨昭穆漢之世家年表唐之氏族志其來遠矣我東重氏閥凡大家世族姪各有譜所以嚴派系而序昭穆壹宗族而合疎遠于以尊祖而敬宗于以敦親而厚倫俾知萬殊之必本於一此譜之不可以不作也吾丁自檢校大將軍公仕麗朝九世簪纓蟬聯赫烏逮 聖朝隱德公積德累仁子孫昌盛名公巨卿繼世而出月軒公文章清節焜耀于一世忠靖公碩德重望鼎呂乎 國朝哀然爲域中望族矣吾族之譜始於述先錄及海營順天譜而或中圯而微或析而散處存沒之莫詳而聲響之不及焉則不免有闕漏疎略之恨泊于高宗庚午始成大譜合一族之衆而益廣親親之意距今一周甲而昭穆代序生齒益滋世道寢紊喪亂繼之苟不及今而續修之則必將至於無所管攝而便路人若也族姪元變甫用是之懼迺自戊辰集合諸族謀所以重刊殫心宣力始終不捨越四年辛未功役甫就蓋其敦宗收族之誠繼志述事之道可謂至矣詩曰孝子不匱永錫爾類迨先而思揚之孝也聚族而思一之仁也凡同是譜者既孝且仁父詔兄勗益勉篤厚則安和不異曰食舊德而藉餘蔭吾宗門戶繼此昌大以蕃錫類之慶也哉編旣成徵弁卷之文於余余以耄諤不獲乃敢握管而書刊事大槩如右若其本籍之所自出各派之所由分暨歷世懿躅之詳俱載於譜牒今不復贅云 辛未九月下澣成均博士不肖孫大夏再拜謹序

신미보머릿말
 譜라함은 代를 뜻함。 周나라 官員 小史가 나라의 기록을맡아 代의 昭穆을 分別토록 하였고 漢나라때의 世家의年表와 唐나라때의 氏族志의 由來가 오래다。 우리나라는 氏族의 문벌을 重히여겨 무릇 大家와 姓마다 족보가 있는것은 派系를 엄숙히

하고 昭穆을 순서있게 하여 한종족이 멀고 성김을 합하여 그리하여 조상을 존중히 받들고 종통을 공경하며 친족과 돈독하고 윤리를 두텁게 하여 만가지의 다름이 꼭 하나로 뭉치는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이니 이것이 족보의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丁氏는 검교대장군공 으로부터 고려조에 벼슬하시어 九代를 官運이 계속하였으며 李朝에 이르러 은덕공께서 덕을 쌓으시고 어지신일을 거듭하시어 子孫이 昌盛하여 이름높은 判官과 큰재상이 代를이어 나시어 월헌공(月軒公)께서는 文章과 淸節하심이 一世에 빛내시고 忠靖公(忠靖公)께서는 높으신덕과 무거운 명망이 朝野에 투철하시어 미상불 우리나라 안에서 望族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족보는 술선록에서 시작되어 해령보 순천보까지 이르렀으나 중간에는 흐지부지 하였고 혹은 四方으로 흐터진고 로 어디살고 언제죽음이 자세치않고 이야기도 들을수없게된즉 저절로 빠져 성기고 빠지게됨을 면치못하게 되던바 高宗경오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大譜가 되어 일즉이 여러분을 모았고 더욱 친족과 친하는뜻이 넓어진지 지금 六十年인데 소목대서(昭穆代序)와 생산과 면세가 더욱 높고 時代가 어둡고 문란하여 점점 기대하기힘들고 끈지않은지라 참으로 이제 족보를 하지않으면 필경 장차 붓을 달수없어 문득 尙행인같이 될터인바 卽 元燮甫가 이일을 두려워하여 이에 戊辰년에 제종을 모아 족보할일을 의논하여 속을섞이고 힘을다하여 처음부터끝까지 놓치지않아 四年만인 辛未年에 功力이 이루우니 어떻던지 종족을 돈독히하고 일가모두는 뜻을 보이며 보사를 하는 도리가 참 지극하다 하겠다. 시전에 하였으되 孝子는 흐터지지않고 기리기리 서로모여 있어라 하였으니 祖上을 추모함이 효도요 一家를 모아 한결같이 생각함이 어진일이니 무릇 이족보에 동보한 사람은 이미 효도하고 또 어진사람이 되었으니 애비가 가르치고 兄이 일러주어 더욱 친절하고 두텁도록 애쓰면 어찌 다른날에 선조의 덕을 쓰고 선조의 음덕이 아니며 우리종중門戶가 여기서부터 창대하여서 一家로 퍼지는 경사가 아닌줄 알것인가 보책이 다 이루어 버리게 될 나에게 받으려하니 내 늙고 단문하여 할수없으나 이에 감히 붓대를 잡아 발간하는 사정의 대강을 오른평과같이 쓰고 그본적의 所自出과 각과의 분과됨은 歷代의 아름다운 자취의 자세한것 같은 일을 모아 보첩에 실려있음으로 지금다 시 여러말 앓는다 신미(辛未 서기一九三一) 九月二十일에 성균관박사 불초손 대하(大夏)는 재배하여 삼가 서한다.

辛丑譜序

詩之所謂天生蒸民有物有則人之所謂綱常之道明於昭穆之序正於禮義之分是皆周之小史之本也亞洲本是人類發祥之地不啻況我東方世稱禮義之邦歐美諸國咸羨不已思在景仰之域吾等修譜收族豈可忽乎譜者普也而普者明揭宗統列錄派別追詳先祖遺跡繼起後孫蕃衍豈不重且大歟丁氏自近古有譜而至倭胡兩亂幾乎蕩籍存者幾稀噫觀雲公始抄述先錄德巖公繼之而修海營譜斗湖公作順天譜又繼之而至于 高宗庚午及辛未吾丁大譜始克完成始祖高麗檢校大將軍諱允宗以下九世簪纓連綿不絕逮于李朝隱德公累仁積德暨乎子孫名公巨卿彬彬輩出道德與文章昭顯于世到今稱之以名門華族而餘蔭所暨子孫蔓延散諸八域豈不昌大乎嗚呼辛未修譜於焉三十餘載而又被庚寅動亂國土分裂民族散亡莫知其所指矣挽近族大父大懿氏痛歎于此奮然欲起收族之議往在庚子茂院亨祀後諸宗爛商協議開宗會于天安佛堂洞乃決重刊之議宗議皆曰大懿氏辛未修譜時既有有司之經驗推薦爲都有司衆口歸一憲燮氏及奎完糸列校正之務不佞奎完本以菲才薄識莫堪其任固辭不已以諸宗強勸辭而不得擔其任務眞所謂有認稗爲苗之嫌掬砂遺珠之嘆眉山之譜馬遷之筆何足以論之哉霑汗無己不佞受任以來夙夜憂懼祖先行績考於前錄問於宗老章章確然而乃成抄出譜板八層爲欄降自著代而下有空白則上欄傍註直書其下亦非舊例實無關於著代昭明之理而前譜十一卷縮成七卷今日之若干節約似合於吾人之經濟也亦有所悚汗者舊碣諸文載在辛未譜者間有脫漏之誤故參考原刻補正新譜豈無前譜疎漏之歎乎摹寫分派圖插入卷首人輒開卷昭穆之序行列之辨瞭然在目蘇氏所謂孝悌之心安得不油然而生哉諸宗合心協力其功不暮年而告訖

明於昭代述先而備矣謹構蕪辭修譜之顛末以編于末

光復後十七年辛丑秋夕顯菴公十二代孫不肖奎完謹跋

신축보발문

詩에 이른바 하늘이 萬百姓을 내고 萬物의 法則이 있으니 사람의 綱常之道는 昭穆의 順序를 밝히고 禮儀의 分數를 바르게 함이
 라 하였으니 이것이 다 周나라 官員 小史의 根本이다。 亞細亞는 本是 人類의 發祥地일뿐 아니라 所謂 世稱 東方禮儀之國임
 을 歐美諸國이 다함께 부러워하며 景仰하여 마지않는 바이니 우리의 족보하는 것과 一家를 모으는 것을 어찌 疎忽히 하랴。 譜
 는 普의 뜻이니 譜는 宗統과 列錄과 派別을 밝힘이니 先祖의 遺蹟을 仔細히 살피고 계속 이러나는 後孫의 蕃昌이 어찌 重大
 하지 않으랴。 丁氏는 近古로 부터 譜牒이 있었으나 倭胡兩亂에 이르러 거의 蕩籍하여 남은 것이 없었도다。 崐오다 觀雲公께
 서 비로서 述先錄을 抄하셨고 이어 德巖公께서 海營譜를 斗胡公께서 順天譜를 만드셨고 또 계속해서 高宗庚午年과 辛未年에
 이르러 우리 丁氏의 大譜가 비로서 完成되었었다。 始祖 高麗檢校大將軍 諱允宗 以下 九代가 官運이 계속되었으며 李朝에 이르러
 隱德公께서 積德하시고 어진일을 거듭하시어 子孫이 繁榮하여 名公巨卿과 道學文章이 代를이어 나타나시니 世上에서 名門華族이
 라 일컬어지게 되었으니 그 蔭德으로 子孫이 蔓延하여 八域에 퍼져사니 이 昌大함이라。 嗚呼 辛未修譜後 어언 三十餘年에
 또 庚寅動亂으로 國土는 分裂되고 겨레는 散亡하여 그所指를 알지 못하겠으니 挽近에 族大父 大懿氏가 이를 恨歎하여 奮然히
 收族之論을 이르고저 지난 庚子年 茂院亭祀 때 宗中과 爛商協議하고 宗會를 天安佛堂洞에서 열고 重刊할 것을 決議하니 모두가
 大懿氏는 辛未譜 때 이미 有司의 經驗이 있으니 이번 都有司로 추천하기를 一致可決하고 憲燮氏와 奎完을 參列케 하여 校正의
 役을 보게하였다。 그러나 奎完은 本來 재주없고 아는 바 없어 司馬遷의 筆致를 어찌 足히 말할 수 있으랴 冒濼하며 抄하고 譜版을
 니 眞實로 이른바 稗苗의 分別과 砂珠의 區別을 못하고 眉山之譜 司馬遷의 筆致를 어찌 足히 말할 수 있으랴 冒濼하며 抄하고 譜版을
 일을 맡은 以來 밤낮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先祖의 行蹟을 前錄에서 參考하고 宗老에 물어서 章章히 밝히어 抄하고 譜版을
 八層欄으로 하여 代를 내리記錄하고 아래 空欄에는 上欄의 註를 直書하니 舊例는 아니나 實은 無關하였다。 前譜十一卷을 七
 卷으로 줄인 것은 若干의 節約으로 經濟에 符合하게 함이었다。 또한 두렵고 담나는 것은 辛未譜에 실린 舊碣文에 間間이 漏字와
 誤植이 있는故로 原刻을 參考하여 補正하였으나 新譜가 어찌 前譜를 歎하랴。 分派圖를 首卷에 넣은 것은 冊을 열면 昭穆의 차
 례와 行列의辨을 瞭然하게 함이로다。 蘇氏의 말대로 孝悌之心이 어찌 油然히 生하지 않을까보나 諸宗의 合心協力한 그功으
 로 해가 저물지않아서 마쳤으니 系代를 昭穆히 밝힌 述先을 갖추었노라 삼가 거칠게 여어 修譜의 顛末로써 끝을 맺는다。

光復後十七年 辛丑 西紀一九六一年 秋夕 顯菴公十二代孫 奎完은 근발한다。

羅州丁氏上系錄

一世

丁允宗

高麗檢校大將軍 諡忠烈後孫 若鏞謹按高麗 史百官誌云太 祖初有馬軍將 軍大將軍是武 職也其職如今 從二品嘉善大 夫也檢校猶言 原任檢攝軍務 配貞敬夫人黃 氏大相虛敬女 高麗大相虛敬 大將軍을 지 내시다. 配位는 정경 부인 大相虛 허경의 따님 이시다.

二世

子奕材

역재

中郎將同正○ 侍中侍御使都 染令同正若鏞 謹按中郎將者 正五品將官也 同正者副正僉 正之類以將官 兼他司之職也 失傳 中郎將동정을 지내시다. 配位는 失傳 하여 알 수 가 없다.

三世

子良

양

侍中 別將同正若鏞 謹按別將者正七品將 官也 同村朴氏父都染署 令正希 別將 同正을 지 내시다. 配位는 同村朴씨 父는 都染署 令 正希이시다.

四世

子信

신

別將同正 同村朴氏父戶長仁 規 別將 同正을 지 내시다. 配位는 同村朴氏 父는 戶長 仁規이시다.

五世

子俊

준

別將同正 同村朴氏父散員同 正彦林 別將 同正을 지 내시다. 配位는 同村朴씨 父는 散員同 正 彦林이시다.

六世

子公逸

공일

散員同正○若鏞謹 按散員者正八品將 官也 同村朱氏父副戶長 彦美 散員 同正을 지 내시다. 配位는 同村朱씨 父는 彦美이 시다.

七世

子元甫

원보

檢校護軍○若鏞謹 按高麗恭愍時改將 軍爲護軍○始居開 城南部德水里元 貞大德元祐間人 同村丁氏父大相信 景生三男七子女未 詳 月軒帖丁氏父同村 副戶長信景祖京軍 伯曾祖戶長同正詠 高祖戶長同正仁勇 校尉成直外祖副戶 長朱英 檢校護軍을 지내 시다. 처음에는 開城 南部인 德 水里에 사셨는 데 元貞 大德 元祐때 사신 분 이다. 配位는 同村 丁 씨로 父는 大相 信景으로 三男七 女를 나으셨는데 딸들은仔細히 알 수가 없다. 단 月軒帖에 의 하면 同村 丁씨 父는 副戶長 信景 祖는 京年

八世

子世瑞

세서

初諱瑞 令同正神 虎衛保勝郎忌十二 月十一日○若鏞謹 按別將者正六品將 官也 遂寧朴氏父令同正 英旦忌八月十八日 以上二代墳墓在德 水里云述先錄云 公初諱瑞以 公之 弟安瑞光瑞之例推 之或恐實諱世瑞而 年代已遠未可詳也 生一男 처음의 諱는 瑞 이시다. 令同正 神虎衛 保勝郎將 을 지내시고 忌 日은 十二月十一 日이다. 配位는 遂寧 朴 씨로 父는 令同 正 英旦이시고 忌 日은 八月十八 日이다. 以上二 代의 墳墓는 德 水里에 있다고 한다. 述先錄에 의하면 公의 처음의 諱 가 瑞라 하였으

羅州丁氏文化公派譜

乙丑派譜序文

草木에 뿌리가 있고 大河에 源流가 있드시 森羅萬象 모두가 根源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歷史란 根源을 찾아 그 生成由來를 記錄한 것이니 나라 있는 곳에 國家가 있고 家門 있는 곳에 家史 卽 族譜가 있는 것이다. 國史가 있음으로써 그 民族이 自己계리의 根源을 알게 되고 그 民族의 傳統과 業을 繼承發展 시킬수 있는 것처럼 族譜가 있음으로써 그 子孫들이 뿌리를 알게 되고 祖上의 偉德을 追慕하며 宗族間에 友誼가 더욱 두터워지게 마련이다. 萬物中에 最貴하다는 人間의 記錄이 族譜라 할진대 어찌 疎忽히 할 수 있으랴! 曾高祖의 이름조차 모르던 者가 族譜에서 찾았다는 逸話도 있으나 萬一 族譜에 記錄이 없다면 그 뿌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삼가 우리門中の 修譜하신 來歷을 살펴보면 十五世紀頃 中宗年間에 月軒公께서 月軒帖을 만드신 것을 嚆矢로 하여 僉正公(諱玉精)의 僉正帖등이 傳해오던中 壬辰 丙子 倭胡兩亂으로 家帖과 傳家文獻이 兵火에 蕩失되고 仁祖戊子年間에 水村公(諱彦璿)께서 만드신 水村錄이 있었으나 이미 公께서 別世하신후 修譜에 參考될 文籍이 全無한 터에 觀雲公(諱時傑)께서 外弟 權礪家에서 家牒一本을 求하시어 記錄하신 것이 述先錄이다 그 후 肅宗戊午年間에 德巖公(諱昌燾)께서 黃海監司로 계실때 監營에서 版刊하신것이 海營譜이며 斗湖公(諱時潤)께서 肅宗壬午年間에 順天都護府使로 계실때 版庫에서 印刊하신것이 單卷인 順天譜이다 그 후 百六十餘年間이나 譜事를 缺하시고 空白期를 거치는 동안 繁昌한 子孫들을 收拾하시고저 縣監公(諱馨教) 叅判公(諱洵教) 署令公(諱大栻) 諱大翊公 通政公(諱友燮) 등 諸公께서 三年餘의 勞苦로 高宗庚午年에 九卷의 譜를 完成하시니 이것이 庚午大譜로서 그 規模와 體制와 內容이 損色이 없다 하겠으며 그 후 時代變遷으로 交通과 通信이 便利하여짐에 따라 全國에 散在한 宗族들이 모여 族譜를 發刊하기로 議決하고 江原道署理觀察使를 지내신 元燮氏께서 譜所를 서울 苑西洞 自宅에 두시고 各派代表들과 같이 四年餘에 걸쳐 十一卷의 譜를 編纂하시니 庚午譜以後 六十年만에 닦으신 辛未大譜이다. 一九四五年 解放과 더불어 國土는 分斷、六二五動亂으로 血肉이 흐터지고 世居地를 잃은 宗族이 不少하며 三十年間 繁昌한 子孫들의 收錄이 不可避하여 陵谷享祀때 意見을 모아 譜所를 天安에 두고 大懿氏 憲燮氏 奎完氏 등 諸公이 七卷의 譜를 編하신 것이 辛丑譜이다.

嗚呼라! 譜事에 參與할 때는 熱과 誠을 다하던 後孫들이 宗中事에 不參하고 無關心할때 이를 奇貨로 不正이

寄生하여 宗事 百年之計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니 이같은 拙愚한 行爲를 全後孫은 嚴重警戒하면서 先祖의 永久奉祀

를 爲한 貴重한 宗財를 一心으로 保全하여 子孫된 道理를 지킨 然後에 福을 받아 마땅할것이다 回顧하던대 一九七八

年에 始作한 汎丁氏大同譜의 譜事가 五年餘에 中止되고 羅州丁氏大同譜事가 亦是 霧散된 原因은 譜務의 不合理와

宗中財産管理의 不正으로 惹起된 宗族間의 不信으로 緣由되었음을 附記하여둔다 이리하여 各派에서는 派譜를 發刊

하기에 이르렀고 一九八四年六月에 우리 文化公派宗會에서도 派譜를 發刊하기로 議決하고 修單의 補完과 漏譜者가 없도록 努力하였고 全後孫의 精誠과 協助로 이같이 完成을 보게 되었으나 或 錯誤가 있을지라도 寬容을 바라오며 다음 譜事때 補正할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이 譜事에 助力해주신 江村 奎恩族兄에게 感謝하오며 이 譜가 世德을 기리고 族誼를 敦篤히 하며 子孫萬代에 續刊修譜하는데 本이 되며 繁榮의 寶典이 되어지기를 懇切히 바라마지않는 바이다。

一九八五年 乙丑 九月

十四代孫 理事官不肖 奎賢 再拜 謹識